청년절 성대히 경축
조선의 북변 삼지연시를 찾아서
조선
주체110
(2021)
9
(782)

주체45(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CONTENTS

특별소식

소 식

기념편집

오늘의 조선

력사, 문화

천연기념물

표지: 청년절을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뒤표지: 청년절을 경축하여 수도의 밤하늘에 축포가 오른다.

편집: 신재철, 김정철, 김규성, 승 룡, 김광철

12

32

54

6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주택구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연기복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택구를 형성하니 보기가 좋다고, 산비탈면을 그대로 리용하면서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없이 건설하는 다락식 주택구의 본보기가 창조되였는데 이러한 건설경험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령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의 건축발전과 우리 당의 건설정책집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사속도가 빨라지는데 맞게 설비와 자재보장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워 공사를 일정대로 내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와 지방도시들의 현대화, 문명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도시건설계획을 잘 세우고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물과 시설물, 도로, 록지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인민들의 생활에 최대한 편리하고 위생문화적인 환경을 보장하여줄수 있게 호상련관속에서 계획하고 배치하며 도시의 특징을 창조할수 있도록 다양하고 매력적이며 독특하게 구성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절경축행사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절경축행사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동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오매에도 그리며 뵙고싶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된 청년들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청년전위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축행사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자라난 새세대 청년으로서의 응당한 소행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긍지높이 내세워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축하문도 보내주시며 하늘같은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꿈과 리상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들에 남먼저 달려가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미더운 청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의 부름앞에 무한히 충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것을 인생의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매우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전세대들이 창조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애국청년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라는 고귀한 부름을 인생의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이 자랑하는 영웅청년으로 이름떨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이 터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신념의 함성이 또다시 폭발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끝없는 감격에 넘쳐 목청껏 환호하는 청년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한 청년들을 만나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월 30일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그들의 소행과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이어가고있는 시대에 이들처럼 당과 혁명의 부름에 충실한 청년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표출이며 우리 청년들의 고상한 인생관, 미래관의 발현이라고 하시면서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제일가는 자랑이고 밑천이며 재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의 장엄한 총진군길에서 우리 청년집단이 그 어디서나 투쟁의 불씨가 되고 료원의 불길이 되여야 한다고,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조국의 부흥과 진보를 위하여 분투하는 청년영웅이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억센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부름에 실천으로 화답해나선 미더운 청년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면서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는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들에 진출한 모든 청년들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진 결의를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당과 조국을 위해 귀중한 청춘시절을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이며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나가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진출한 미더운 청년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였다

축 하 문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진출한 미더운 청년들에게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을 위한 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훌륭한 남녀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적극 탄원진출하여 전체 인민들의 신심과 투지를 더욱 북돋아주고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조선청년의 혁명성과 전투적기개를 만천하에 과시하고있습니다.

나는 사회주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억센 신념을 지니고 난관도 희생도 두려움없이 혁명을 위해 용감히 싸울것을 결기해나선 동무들의 애국적인 장거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딸들, 제자들의 장한 결심을 지지해주고 기꺼이 떠밀어준 훌륭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이 애국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이끌어주고 밀불이 되여준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피더운 심장과 용솟는 열정으로 조선청년의 억센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청년절을 맞이한 전국의 청년들에게도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서자란 고향과 가슴속에 키워온 희망은 서로 다르지만 당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꿈과 리상을 안고 누구나 선뜻 가기 저어하는 일터와 생소한 고장들에 인생의 닻을 내린 동무들은 사회주의조선의 크나큰 자랑이고 힘이며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시대의 청년애국자들입니다.

동무들의 소행은 사회주의와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하려는 투철한 신념, 우리 국가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당과 혁명을 위한 길에서 삶의 영예와 보람을 찾는 아름다운 인생관의 발현입니다.

당 제8차대회이후 시대와 조국의 부름에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화답하는 청년들의 탄원열기가 비상히 격양되여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한 청년들의 대오가 급격히 장성한 사실은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세계의 곳곳에서 청년들이 탐욕과 향락만을 추구하며 수도에로, 도시에로 찾아들 때 수도시민증을 파견장으로 바꾸어 탄전으로, 협동벌로 달려나가고 도시를 떠나 대건설장으로, 섬마을로 주저없이 진출하는 청년들은 오직 사회주의조국의 품에서 자라난 조선청년들뿐입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의 아름답고 훌륭한 정신세계에서 세대가 아무리 바뀌여도 변색을 모르고 맥맥히 살아숨쉬는 애국의 넋과 혁명정신을 읽고있습니다.

정든 집과 불밝은 도시, 사랑하는 부모형제들과 떨어져 남다른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초소들에 자원진출한 동무들의 고결한 정신이야말로 혈육들을 뒤에 두고 설한풍 휘몰아치는 광야에서 풍찬로숙하며 피흘려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의 빛나는 계승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을 개척한 항일선렬들의 붉은 피는 새세대들의 심장에 그대로 흐르고 있으며 이것은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이 끗끗이 이어지고있다는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지금 원쑤들은 이 도도한 흐름과 기상에 전률하고있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제재압박과 끈질긴 사상문화적침투책동으로 우리의 청년대오를 변질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는 이 용용한 대하앞에 물거품이 되고말았습니다.

우리의 새세대들을 혁명의 편에서 떼여내여 사회주의보루를 무너뜨리려는것은 백년이 가도 이룰수 없는 헛된 망상입니다.

심장의 피가 펄펄 끓는 동무들의 혁명적진출로하여 총진군대오의 사기는 날로 충천해지고있으며 온 나라에 필승의 신심과 청춘의 활력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혁명의 고조기는 항상 청년들의 거세찬 탄원열기로부터 시작되였고 이 탄원폭풍은 언제나 온 나라에 혁명열풍, 애국열풍을 불러 격동적인 시대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청년들을 부른 당의 호소를 받들어 험준한 산발과 파도세찬 날바다우에 청춘의 배낭을 풀어놓고 고귀한 구슬땀을 바친 청년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열의에 떠받들려 황량하던 페허우에 시대의 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고 이 땅우에는 전설적인 천리마시대, 로동당시대의 대번영기가 펼쳐졌습니다.

나라가 시련을 겪을 때, 우리 조국이 또 한단계의 도약을 요구할 때 당과 혁명이 부르는 제일선에 용약 달려나가 불멸의 위훈으로 강산을 뒤흔들던 기적의 청년신화는 결코 추억속에 있는 과거가 아니며 오늘도 우리 혁명이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전세대들이 창조한 혁명정신, 투쟁기풍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청년대군을 가진 국가는 영원히 로쇠를 모르고 혈기왕성한 젊음으로 비약하며 전진합니다.

94년전 바로 오늘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열혈의 청년혁명가들이 그려보았던 공산주의사회는 먼 래일의것이 아니며 바로 로동당의 부름에 무한히 충실한 애국청년들의 굴함없는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현실로 펼쳐질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건국이래 가장 준엄한 국면에 처해 있으며 전대미문의 난관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돌파해나가고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선들에 집단적으로, 앞을 다투어 탄원진출한것은 몇십, 몇백만t의 강철과 비료가 쏟아져나오고 몇만대의 기계가 생산된것보다 더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보다 기쁜것은 뒤떨어졌던 청년들이 애국으로 뭉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일원답게 어머니조국을 위해 자기를 바칠 훌륭한 결심을 하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는것으로 인생의 새 출발을 한것입니다.

애국열에 끓는 청춘의 심장들이 불씨가 되여 수백만 심장에 불을 지피고 이 불길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나약하고 흐리터분한 잔재들을 산산이 태워버리면 조선혁명의 승리의 시간표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됩니다.

당에서는 동무들이 지금의 앙양된 애국열의와 투쟁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전진하는 대오의 맨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수가 되고 선봉투사가 될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동무들이 헤쳐가야 할 길에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을것입니다.

힘들것을 다 각오하고 시작한 길이겠지만 잠시나마 곤난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면 탄원의 그날에 다진 맹세를 되새겨보고 전세대들의 정신세계에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동무들모두가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들에서 투쟁과 위훈의 활무대를 펼치고 청년돌격대, 청년결사대의 위용을 떨치며 이 땅의 외진마을들까지 다 공산주의화해나갈 때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는 더 굳게 다져지게 될것입니다.

나는 애젊은 나이에 당과 국가의 걱정과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 자원진출하여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모든 청년들이 일터의 보배, 위훈의 주인공으로 집단과 동지들의 사랑을 받으며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영웅청년으로 이름떨치리라고 믿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고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고생을 달게 여기며 청춘시절을 바친 보람찬 자욱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인생의 재부가 되고 후대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으로 될것입니다.

최근 청년동맹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동맹내부사업,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전환을 일으키고있으며 그로 하여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과 정신상태도 눈에 뜨이게 달라지고있습니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일군들은 이번에 쌓은 경험에 토대하여 긍정이 긍정을 낳는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키며 청년들의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우리의 청년대오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는 견실한 애국자들의 집단으로, 당의 믿음직한 별동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 태여나 자라난 청년이라면 한사람도 남김없이 모두다 공산주의사회까지 데리고 가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어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 지역, 자기 단위에 진출한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주며 당을 받드는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식들을 떠나보낸 가정들을 애국자가정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청년대군은 우리 당에 있어서 어느때나 의지하게 되는 하나의 든든한 지지점이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강력한 력량으로 되고있습니다.

장하고 미더운 청년들의 열렬한 충성심과 전체인민의 두터운 지지와 신뢰에 떠받들려 우리 당의 위업은 승승장구할것입니다.

간곡한 당부로서 동무들이 생소한 고장, 새 일터에서 앓지 말고 건강하여 부모형제와 스승, 조직과 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새로운 혁신과 끊임없는 위훈창조로 아름다운 삶을 빛내여가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모두다 우리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나는 동무들이 어머니당의 참된 아들딸답게 조선청년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리라 굳게 믿습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 정 은

주체110(2021)년 8월 28일

청년들을 사랑하라!

1991-2021

청년절제정 30돐

조선에서는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고
해마다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청년절 성대히 경축

조선의 수백만 청년들이 청년절제정 30돐이 되는 8월 28일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올해 1월 당 제8차대회가 진행된 이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진출한 각지의 청년들과 모범적인 청년동맹일군들을 비롯한 1만명이 청년절경축행사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 탄원진출한 미더운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전달모임이 28일에 진행되였다.

청년전위들에 대한 열화의 믿음과 기대가 담긴 축하문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서 꺼질줄 모르는 투쟁의 불길, 열혈의 선봉투사가 될 열의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함성을 터쳐올리였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전체 모임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일터와 건설장마다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의 기개를 힘있게 떨쳐나갈것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엄숙히 맹세하였다.

수도의 무도회장들인 4.25문화회관광장, 개선문광장을 비롯하여 신의주, 해주, 강계, 혜산, 청진 등 각지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진군길에서 서른번째 청년절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펼쳐졌다.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28일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였다.

청년절경축행사참가자들이 야회를 관람하였다.

야회참가자들은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환희로운 춤바다를 펼치였다.

야회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오색찬연한 축포의 불줄기들이 솟구쳐올라 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29일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는 청년절경축무대 《애국청년의 위용떨치리》가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진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갈 조선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화보
[소 식]
청년절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백두의혁명정신

청년절

청년절경축무대

《애국청년의 위용떨치리》 진행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시가전

화강석조각
《18필의 준마》

Granite sculpture
"Eighteen steeds"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인디아 인터첌상사 사장과 홍콩 텍스첌상사 사장(인디아사람)이 드린 선물
주체81(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공화국정부의 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의 나날에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조선인민은 반만년력사상 처음으로 자기들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뜨겁게 돌이켜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장 주체37(1948)년 8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위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참가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내각수상으로 높이 추대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37(1948)년 9월

해방(1945.8.15.)후 북조선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새 사회건설이 힘차게 벌어졌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수립과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민주개혁들의 실시…

해방후 처음으로 실시된 북조선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선거의 승리에 기초하여 주체36(1947)년 2월에는 북조선인민회의가 창설된데 이어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실은 너무도 대조적이였다.

패망한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를 구실로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군정을 실시하고 남조선 각지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해산하였으며 독립국가건설을 갈망하는 조선인민의 지향과 열의를 무참히 유린말살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분렬책동은 1947년말-1948년초에 들어서면서 더욱 로골화되였다.

당시 미제는 조선문제를 유엔에까지 끌고가 조선을 영구분렬시키려고 획책하였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주체37(1948)년 3월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가 소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북과 남의 모든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련석회의를 열고 민주주의 통일국가수립을 촉진시킬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책들을 제시하시였다.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

이에 따라 4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 695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열리였다.

련석회의에서는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결의를 담은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격문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을 채택공포하였다.

이어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지도자들은 협의회를 가지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당면문제를 밝힌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반대와 배격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강행하여 괴뢰정부를 조작하였다.

민족분렬의 위기를 결정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지체없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전조선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이에 따라 국장과 국호, 국기제정,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인 토의사업과 함께 주체37(1948)년 8월 25일에는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위한 전조선적인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북조선에서는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하여 212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선거되였다.

미제의 탄압과 폭력이 란무하는 남조선에서도 전체 선거자의 77.52%가 선거에 참가하여 1 080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였으며 이 대표들은 해주에 모여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

주체37(1948)년 9월 마침내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열리였다.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이 되였으며 조선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떳떳이 나서게 되였다.

글 김선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근로인민에게 정권의 주인이 된 크나큰 긍지와 기쁨을 안겨주었다.

조선의 북변
삼지연시를 찾아서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산인 백두산(2 750m)이 솟아있는 량강도 삼지연시에 새날이 밝아왔다.

시의 서쪽에 위치한 베개봉전망대에 오르면 두해전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 본보기로 태여난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당시 삼지연군 읍지구를 이루고 있던 거리들과 살림집, 공공건물구획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수백정보의 부지에 4 000여세대에 달하는 소층, 다층살림집들과 380여동의 공공 및 산업건물들이 솟아 옹근 하나의 새 도시를 형성하게 되면서 군은 시로 승격되였다.

아득히 펼쳐진 천리수해와 조화를 이룬 도시는 거리와 구획마다 또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갖추고 있다.

도시의 모든 거리들을 다 돌고 돌아도 꼭같은 형식의 아빠트를 찾아보기 힘들다.

밀영거리의 광명성동에는 꽃동산을 방불케 하는 소층살림집들이 민족적 특성을 살리며 오붓하게 들어앉아있고 리명수거리의 베개봉동에 가면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이 늘어서있다.

청봉거리의 봇나무동에 자리잡고 있는 살림집들은 또 얼마나 특색있는가.

생산구획과 생활문화구획으로 구분되여 새로 일떠선 공장과 기업소들에서는 근로자들의 긍지와 랑만에 넘친 생활이 흐르고있다.

시대적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일떠선 학교들과 병원, 도서관, 문화회관, 체육관 그리고 호텔과 식당을 비롯한 봉사기지들이 록음우거진 계절과 더불어 자기의 매력적인 모습을 한층 돋구고있다.

도시의 완공과 함께 거리들의 구획마다 심어진 종비나무, 봇나무를 비롯한 가로수들은 그새 더욱 키높이 자라 도시의 청신함과 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다.

삼지연호텔

그와 함께 살림집들마다에서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새 없다.

사진 홍광남, 김성철
글 강수정

살기 좋은 농촌마을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를 찾아서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는 지형이 마치 날아오르는 기러기와 갈다고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된 곳이다.

면적의 50%이상이 산지인 구석진 농촌이였던 이곳은 해방(1945. 8. 15.)후부터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농업협동화가 실현된 다음 토지정리와 새땅찾기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부침땅면적은 해방전에 비해 100여정보나 늘어났다.

축산업과 과수업, 잠업이 시작되여 잡관목만 무성하던 야산들은 과수원과 뽕밭, 풀판들로 전환되였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이 줄기차게 진행되는 속에 주택들과 학교, 병원, 문화회관 등이 일떠서고 수도화가 완성되였다.

새 세기를 앞두고 리의 모습은 또다시 변모되였다.

주체89(2000)년 주변을 감돌아 흐르는 서흥강에 중소형수력발전소가 일떠섰다.

소재지마을근처의 원소에서 사철 솟구치는 샘물을 리용하여 담수양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 결속되여 20여정보에 달하는

양어장이 생겨났다.

양어장에서 덥혀진 물이 논밭들의 관개수로 적극 리용되면서 리의 알곡 생산량도 장성하였다.

앞에는 물고기가 욱실거리는 양어장이, 뒤에는 과일들이 주렁지고 집짐승떼가 흐르는 야산들이 펼쳐진 속에 규모있게 들어앉은 마을의 경치는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전국각지의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그림같이 황홀한 범안땅의 모습을 보려고 이곳을 찾아온다.

자기 마을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가려는 이곳 사람들의 자각과 열의가 더욱 분출되였다.

그후 마을에는 새 농촌문화주택들과 리인민병원, 범안원, 농업과학기술보급실 등이 련이어 일떠섰다.

범안땅의 전변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사진 리성익
글 김선명

서흥군 범안양어사업소에서는 철갑상어, 칠색송어, 룡정어, 잉어, 초어를 비롯한 랭수성 및 온수성물고기들에 대한 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해마다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고있다.

화보【오늘의 조선】
신동들의 요람을
찾아서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주체43(1954)년 11월에 개원한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은 오랜 연혁을 가지고있다.

본부동지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전교육기관이였던 유치원은 1980년대초부터 뛰여난 어린이들을 키워내는 조기교육단위로서의 사명도 수행하여오고있다.

초기에는 전망성있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악기들인 장고와 저대, 가야금 등을 배워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성악과 글짓기, 붓글쓰기, 그림그리기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도 선발하여 가르쳐오고있는 유치원이다.

최근에는 콤퓨터와 바둑, 수학분야의 신동들을 찾아내여 키우기 위한 사업에로 그 범위를 더욱 넓히였다.

일상적인 아이들의 놀음과 장난에서 재능의 싹을 찾아내는 높은 자질과 능력을 소유하고있는 이곳의 교양원들이다.

해당한 소질이 있다고 보아지는 어린이들은 유치원적인 심의와 등록과정을 거친데 이어 국가의 의무교육과정안에 따르는 교육과 함께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담임교양원과 함께 부모들이 이른바 《전과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교양원이 따로 있다.

그리고 성악이나 기악을 배우는 어린이들에게는 청음과 시창을 배워주는 교양원이 더 붙게 된다.

유치원의 교양원들은 항상 어린이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그들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하고 소질과 지능의 계발정형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교수방법들을 적용하고있다.

유치원에 있는 수십만점의 교편물중 대다수가 이들에 의하여 창안제작된 것으로서 이곳 교양원들이 전국적인 교편물전시회 등에서 받은 창안증만도 근 660건에 달한다.

유치원에서는 지금까지 1만 5천여명의 어린이들을 졸업시켰는데 그중의 약 20%가 음악, 그림, 붓글씨, 글짓기, 수학, 콤퓨터분야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중에는 전국에 이름난 과학자, 예술인들도 많다.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은 주체104(2015)년 **김정일**훈장을 수여받았다.

사진 방은심
글 김선경

세쌍둥이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마음껏 배우며…

조변화

조이화

조해근

평양시 서성구역 상신초급중학교의 1학년생들인 조변화, 조이화, 조해근은 평양산원에서 태여난 390번째 세쌍둥이이다.

한 중앙기관의 운전사였던 세쌍둥이의 아버지 조광빈은 안해의 두번째 임신이 가족수를 배로 불쿠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임신 3개월때 다태자를 임신한것으로 확진받은 그의 안해 최성금은 곧 평양산원으로 파송되여 7개월후에는 세쌍둥이를 낳았다. 쌍둥이의 출산은 유전적영향과도 관계된다고 하는데 이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이모들이 쌍둥이자매라고 한다.

세쌍둥이가 태여나자 나라에서는 아기들과 부모들에게 은장도와 금반지를 선물하였다.

그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4칸짜리 살림집에 이사하게 되였다.

이 집에서 세쌍둥이는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였다.

국가적시책에 따라 몸무게가 4kg이상 되는 건강한 상태에서 평양산원을 나선 그들은 곧장 평양육아원으로 가서 4살까지 자랐던것이다.

유치원에서 글공부와 함께 음악공부도 하면서 그들의 재능은 나날이 높아갔다.

소학교를 거쳐 초급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기쁨과 자랑으로 충만된 그들의 성장과정은 계속되고있다.

과학자의 포부를 지닌 변화는 언제 보아도 학업에 사색을 쏟아붓고 집안의 《꾀꼴새》인 이화는 명가수가 될 꿈을 키워가고있다.

해근이는 체육명수가 되여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발을 휘날리겠다며 학교의 체육소조에서 탁구기술을 련마해간다.

세쌍둥이에게는 유치원시절부터 돌봐주는 담당의사가 있다. 그는 세쌍둥이가 앓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그들을 일일이 검진하고 대책을 세우군 한다.

자식들이 커감에 따라 자기 가정에 대한 국가의 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페부로 절감하며 자식들에게 그 감정을 자주 토로하군 하는 세쌍둥이의 부모들이다.

올해 12월이면 조변화, 조이화, 조해근은 12살이 된다.

사진 안철룡, 황정혁
글 김선경

400여그루의 식물을 키우는 가정

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동의 단층살림집지구에는 유난히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집이 있다.

집둘레를 따라 생울타리를 이룬 줄장미들이며 뜨락을 뒤덮은 갖가지 화초들, 보기 좋게 다듬어진 관상용 나무들, 금붕어들이 노니는 작은 못 등은 아담한 공원이나 식물원을 방불케 한다.

이 집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연구원 로동자 리진호(43살)의 집이다.

원래 식물가꾸기를 좋아하던 그의 아버지의 취미와 습관은 자식들의 성장과정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둘째아들인 리진호의 열성이 남달리 높았다고 한다.

원예와 관련한 그의 상식과 경험은 산림연구원에서 일하면서부터 더욱 풍부해졌다.

주체104(2015)년부터 4년간 그는 집마당의 공지들에 근 30종의 식물들을 심었다.

그리고 뒤뜰에는 수백점의 분재들을 키울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놓았다.

이른아침에 맑은 공기를 한껏 마시면서 식물들을 가꾸는것은 그의 어길수 없는 일과이다.

그는 식물을 가꾸는 일은 결코 과학적리치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정성을 기울여야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다.

오늘 수림속에 자리잡은듯싶은 리진호의 집으로는 꽃씨와 나무모를 구하기 위해 동과 구역은 물론 시안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의 집풍경을 화폭에 담으려고 화가들까지 찾아오군 한다.

이제는 그의 안해도 한다하는 원예애호가가 되였다.

사진 리명국
글 김선경

수림화, 원림화된 공장

지형과 식물의 배합

각이한 관상적효과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자리잡고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현대적인 비단실생산기지로뿐아니라 원림록화가 잘된 단위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있다.

사방 어디에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자라고있는 구내는 식물원을 방불케 한다.

공장일군은 구내에 심은 나무와 꽃관목의 수는 10만여그루에 달하는데 이것은 1㎡당 한그루이상 있는것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계절에 따라 독특한 잎새와 모양을 자랑하는 나무들이 구내의 곳곳마다 조화롭게 배치되여 관상적효과를 높이고있다.

희귀종의 나무들이 많은 양어장주변은 공장의 원림화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양어못가운데의 정각으로 통하는 다리의 량쪽에는 천여개의 화분들이 있고 주변의 휴식터에도 꽃병모양의 화대들과 화분들이 장식효과를 높이고있다.

공장의 원림록화사업은 실리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

과일나무들에서 철따라 수확하는 과일들은 공장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되고있으며 단나무와 은행나무, 찔광나무 등의 열매와 여러가지 약초들은 종업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약재로 리용되고 있다.

이것은 원림록화가 가지는 의의를 자각한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수십년간에 걸치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공장에서는 책임일군들부터가 원림록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소유하고 원림설계와 조성, 관리 등 모든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리고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은 여가시간이면 구내의 꽃과 나무들을 가꾸는것으로 생산과정의 긴장을 해소하고 활기와 정서를 보충하고있다.

*** 각이한 성장효과**

*** 생물학적특성을 고려한 식물배치**

*** 계절적특성이 살아나게 품종선택**

원림록화사업이 생산적앙양을 추동하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는것이다.

원림록화사업을 통하여 많은 덕을 보고있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강수정

조선의 국견
풍산개

조선의 특산품종인 풍산개는 량강도 김형권군(이전의 풍산군) 일대가 원산지인데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였다.

정기가 도는 눈은 비교적 작으며 눈동자는 검거나 재빛을 띤다.

목은 굵고 짧으며 잘 발달되여있다.

배는 암컷이 약간 처진감이 있으나 수컷은 등으로 올리붙어있으며 꼬리는 엉뎅이우로 바싹 올려감겨있다.

털색은 흰색이 기본이며 연한 누런 밤색을 띠는것도 있다.

다부지고 단단해보이면서도 귀여운 인상을 주는 풍산개는 추위와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견딜성이 강하다.

매우 용맹하고 이악할뿐아니라 령리한 풍산개는 오랜 세월 조선민족의 생활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되고 보호되고있는 풍산개는 주체103(2014)년에 국견으로 선정되였다.

글 박병훈

국견-풍산개품평회가 동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사진은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진행된 제6차 국견-풍산개품평회가 진행되고있는 장면이다.)

금옥
강냉이제품전시장
매운맛
강냉이튀기
1 655kJ/100g
100g
강냉이편튀기
150g

강냉이국수

랭면

강냉이

강냉이에는 농마와 단백질, 당분, 비타민, 광물질이 들어있다.
알곡작물가운데서 영양가가 콩 다음으로 많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 가공식료품은 건강장수식품으로 인정되고있다.
강냉이는 갈증을 없애고 리뇨, 해독의 효능을 나타내며 강냉이의 글루타티온은 항암작용을 한다.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커가고있다.

강냉이가공식료품들에 대한 개발, 전시와 함께 봉사활동도 진행하는 이 전시장은 주체105(2016)년 7월에 개업하였다.

실내 곳곳의 강냉이이삭을 형상한 장식품들은 전시장의 성격과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언제나 찾아오는 사람들로 흥성이는 이곳은 특히 저녁시간에는 늘 만원을 이루군 한다.

4층으로 된 건물에는 상점과 식사실들 등이 갖추어져있다.

1층에 자리잡은 상점에서는 청류경제기술사에서 개발, 생산한 다종다양한 강냉이가공식료품들을 판매하고있다.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그 질이 부단히 개선되고있는 강냉이국수, 강냉이편튀기를 비롯한 식료품들을 찾는 구매자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

강냉이빵

강냉이차

건강에 좋은 강냉이제품들은 날로 그 수요가 높아지고있다.

이곳에는 비만증,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속에서 건강식품, 치료식품으로 호평을 받는 각양각색의 당과류들도 있다.

강냉이를 특색있게 가공하여 만든 여러가지 료리들을 봉사하는 2층의 식사실들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즐겨찾는 음식은 강냉이온면이다.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구며 영양가도 높은 강냉이온면은 류다른 맛과 느낌을 주는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단골손님들이 늘어가고있다.

전시장의 식사실들에서 봉사하고있는 수십가지에 달하는 강냉이가공음식들은 모두 이곳 연구집단의 탐구의 결과이다.

이곳의 강냉이음식들은 당뇨병과 동맥경화, 로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강냉이의 특성을 원만히 살리는것을 기본으로 개발된것으로 하여 로인들을 비롯한 중년이상의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고 봉사자들은 말한다.

4층에서 봉사하고있는 강냉이영양차도 자기의 독특한 맛과 향기로 하여 손님들의 찬사를 모으고있다.

금옥강냉이제품전시장은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흥2동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 리광성, 안철룡
글 김선경

만수대창작사 조각창작가들

만수대창작사 공훈조각창작단은 내외에 널리 알려진 관록있는 창작집단이다.

창작단은 주체48(1959)년 11월 17일에 조직되였다.

창작단의 전신인 조선미술가동맹중앙위원회 조각분과에는 50여명의 재능있는 조각가들이 망라되여있었다.

이무렵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거대한 비약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었는데 조각가들은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와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조각 《천리마동상》을 세우는것으로 첫걸음을 떼였다.

조각가들은 6개월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당시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마상인 동상의 원형제작을 36일만에 끝내고 주체50(1961)년 4월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천리마동상이 세워지게 하였다.

이어 창작집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30돐에 즈음하여 주체56(1967)년 6월 량강도 혜산시에 대기념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훌륭히 건립하였다.

이 관록있는 창작집단을 모체로 하여 주체59(1970)년 9월 나라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가 조직되였다.

이때부터 만수대창작사 조각창작단은 조각미술분야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며 더욱 기세높이 전진하였다.

《만수대대기념비》, 《왕재산대기념비》, 《포평혁명사적탑》, 《삼지연대기념비》, 《주체사상탑》, 《개선문》, 《서해갑문기념비》를 비롯하여 전국도처에 세워진 기념비들의 군상, 부각군상, 부각상 등은 모두 이곳 창작단 조각가들의 집체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만수대창작사 공훈조각창작단은 지난 기간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 기여하였다.

만수대예술극장과 인민문화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각지의 수많은 건축물들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장식조각들도 역시 이곳 창작가들의 훌륭한 재능의 결정체이다.

하여 주체97(2008)년 10월에는 공훈창작단칭호를 수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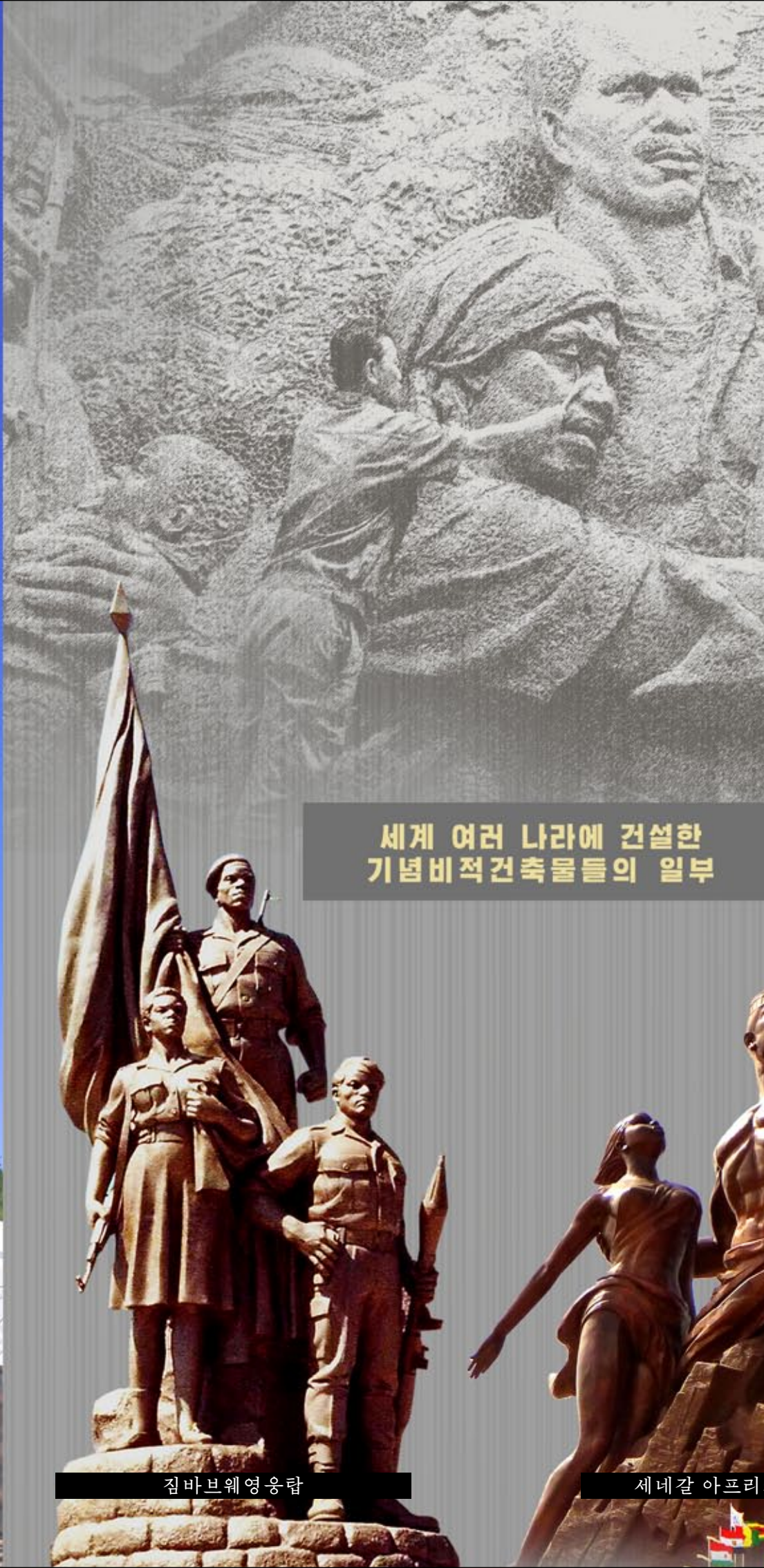
오늘 창작단의 조각가대렬은 창립초기에 비하여 거의 2배로 늘어났다.

평양미술대학 조각학부 졸업생들이 주류를 이루는 창작단은 부단한 세대교체속에서도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사명과 본분을 빛나게 수행해가고있다.

최근의 10년동안에만도 이곳 창작가들은 신천박물관과 계급교양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을 훌륭히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창작단은 국내에서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도 수백개에 달하는 동상, 기념비 등을 건립하여 조선조각예술의 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그 나날에 만수대창작사 공훈조각창작단에서는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사진 최원철
글 김선경

앙골라 초대대통령의 동상

나미비아영웅릉

세계 여러 나라에 건설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의 일부

짐바브웨영웅탑

세네갈 아프리카재생기념비

조선장애자예술협회 바이올린제작자인
김승일(청력장애자)

심장으로 듣는 바이올린소리

악기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소리와 그 울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한 음감을 지니는것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특히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제작자에게는 매우 고급한 목공기술과 함께 예민한 청각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선장애자예술협회 현악기제작실에서 사업하는 김승일은 청력장애자이다.

올해 36살인 그는 태여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을 거쳐 평양시 서성구역의 한 편의봉사단위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도 김승일은 자기가 앞으로 바이올린제작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였다.

승일의 부모들 역시 자식이 그후 장애자예술협회에 망라되여 무용수로서 공연무대들에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모습을 보는것만으로 만족했었다.

어릴적에 붙은 습관이라며 여가시간이면 여러가지 수공품을 부지런히 만들기도 하고 가끔 인민대학습당에까지 찾아가 공예분야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는 그의 취미를 헤아리고 남다른 재능의 싹을 발견한것은 예술협회의 일군들이였다.

그들은 승일을 장애자기능공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떠밀어주었다.

1년후인 주체104(2015)년부터 승일은 커다란 희망을 안고 현악기제작실에서 바이올린제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재간과 열성을 모두 발휘하다싶이하면서 만든 첫 제품이 형태는 괜찮은데 소리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그였다.

악기가 내는 음을 도무지 가늠할수 없는데 어찌하랴.

그를 이끌어 제작대앞에 다시 세워준것은 송학문을 비롯한 제작실성원들이였다.

그때부터 승일은 자기식의 악기제작방법을 하나하나 창조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손가락의 감각으로 바이올린의 현이 내는 음의 진동을 정확히 판별하는것이 그 방법의 골자였다.

두번째, 세번째도 실패였지만 승일은 주저앉지 않았다.

이 과정에 그의 목공술과 세공술도 나날이 높아갔다.

하여 승일은 끝끝내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들어내고야말았다.

그후 김승일이 만든 바이올린이 주체106(2017)년 9월에 진행된 제9차 평양악기전시회에서 기술상을 수여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에 대하여 쉽게 리해하지 못하였다.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찾았던 한 외국인도 김승일에 대해 알고는 놀랍다고, 자기 직업에 대한 무한한 애착을 안고있는 그가 훌륭한 악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나는 마음으로 바이올린소리를 듣는다

2년후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에서 김승일이 만든 바이올린은 또다시 과학기술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황정혁
글 강수정

유명한 포도술생산지

6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강계포도술공장은 인풍술(브란디), 포도술과 더불어 전국에 알려진 기업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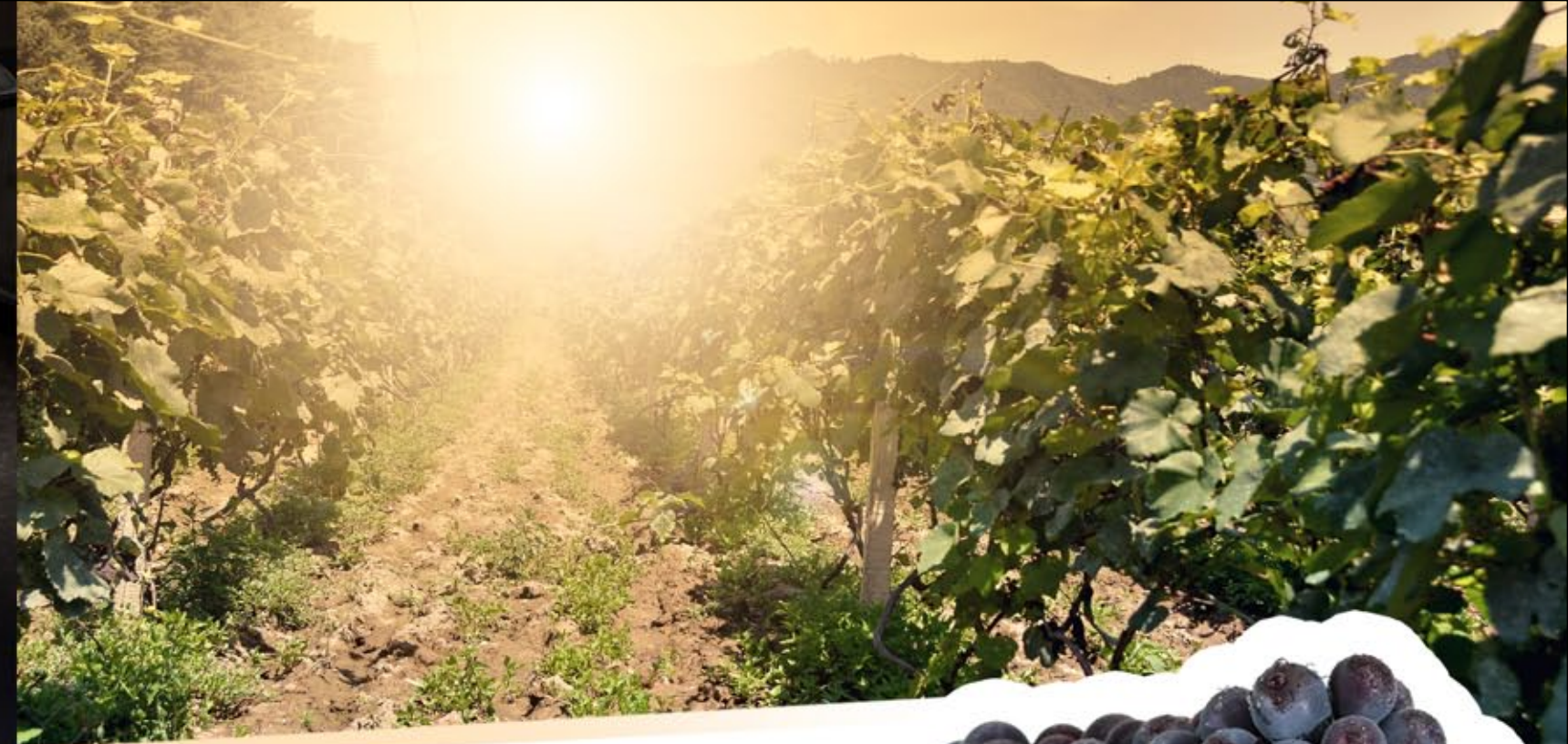
처음 이 고장에 흔한 산열매나 산과일들을 가공하는것으로 기업활동을 시작한 공장은 점차 포도술전문생산기지로 전환되였다.

발효, 숙성, 증류 등 공업적인 포도술생산체계를 확립한 공장에서는 붉은포도술, 흰포도술, 인풍술 등 과일술들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의 포도술연구소에서는 조선내륙지방의 따스한 해빛과 청신한 대기속에서 자란 포도의 맛과 참나무통의 향기가 한데 어울려 우러나오는 강계포도술의 고유한 맛을 계속 살려나가기 위하여 해마다 포도재배와 포도술숙성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이 공장의 포도술은 독특한 맛과 향기, 인체에 좋은 약효로 하여 강계특산품의 하나로 인기를 끌고있다.

공장에서는 포도종자를 개량하고 비배관리를 잘하여 우량품종의 포도를 수확하는것과 동시에 포도술생산방법을 과학적으로 확립함으로써 명제품인 강계포도술의 특성을 적극 살리고 보존해나가고있다.

사진 전선일
글 오해연

공장에서는 강계시주변에 200여정보의 포도밭을 조성하고 조선과 세계의 유명한 포도품종들을 재배수확하여 이 지대의 고유한 풍미를 가진 포도술들을 만들어내고있다.

KANGGYE WINE

독특한 맛과 향기로 이름높은

강계포도술

청신한 천연수림냄새, 따스한 해빛아래 무르익은 시큼달달한 포도향기가 우러나오는 강계포도술은 마실수록 그 맛이 오묘합니다.

장진호에 떼가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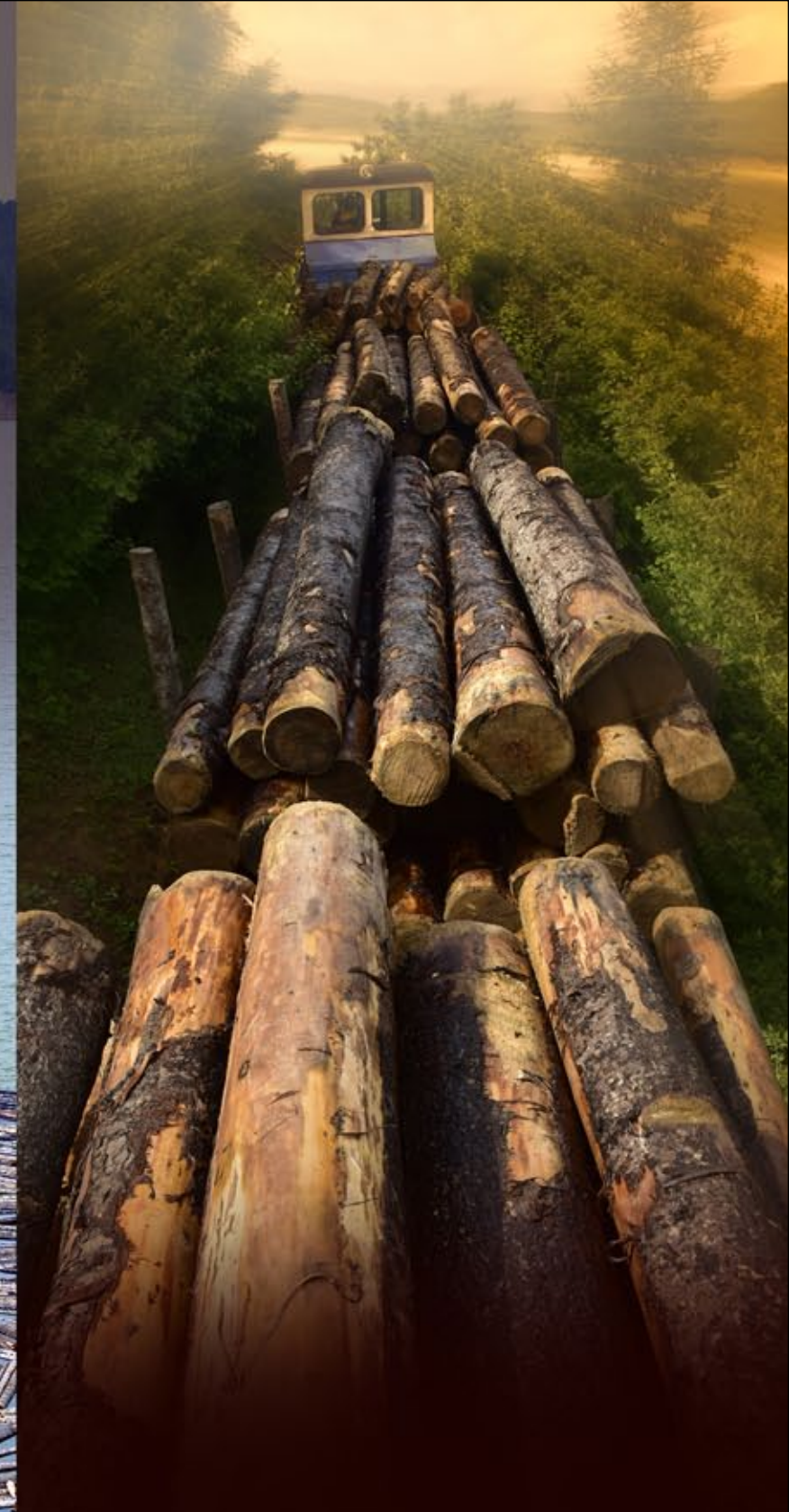
장진림산사업소는 70여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해발높이가 1 000m이상인 고원지대에 위치하고있는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산림은 군면적의 근 90%를 차지한다.

키높이 자란 이깔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가는 곳마다 울창한 숲을 펼치고있는 이곳에 70여년의 연혁을 가진 장진림산사업소가 있다.

조선의 림산사업소들은 통나무생산만 하는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고 자래우는것으로부터 베여나르기에 이르는 산림조성과 관리활동의 모든 업무들을 담당하고있다.

사업소에 있는 5개의 림산작업소들에서도 눈덮인 겨울철에는 산지들에서 벌목과 사이나르기작업을 진행하여 일정한 장소에 생산물을 쌓아놓고 봄부터는 겨우내 벌목한 산지들을 정리하고 어린나무들을 새로 심어 보호관리하는 사업을 주선으로 하고있다.

메물, 갈전, 백암 등 매 작업소에는 고산지대의 자연기후풍토에서 잘 자라는 여러가지 수종의 묘목들을 키우는 양묘장들이 꾸려져있다.

나무베기공들마다 나무 한대를 베면 열대를 심어 지역의 산림자원을 더욱 늘여갈 마음 안고 식수와 비배관리를 주인답게 해나갈 때 수로운재작업소 등에서는 통나무운반작업을 낮에 밤을 이어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기업소에서는 림철과 자동차를 통한 통나무운반과 함께 군의 한가운데 펼쳐진 장진호와 그에 잇닿은 강하천들을 리용하는 실리적인 운반방법을 활성화하고있다.

수로운재작업소에서는 여러 단계의 구간들에서 리용되는 기계설비들의 정비를 짜고들고 능률적인 떼무이방법을 받아들여 생산된 통나무들을 제때에 나르고있다.

해마다 봄과 함께 해빙기가 지나면서부터 푸른 물결 출렁이는 드넓은 호수로 매일같이 흐르는 떼의 모습은 지역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대성산의 력사유적들

평양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승지의 하나인 대성산에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전하여주는 력사유적들이 많다.

유적들의 대다수는 조선의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B.C. 277년-A.D. 668년)가 평양지방으로 진출한 3세기경부터 7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형성된것이다.

이곳에는 3세기경부터 고구려의 남방진출기지의 하나였으며 수도가 평양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그를 지키는 중요한 방어시설이였던 대성산성이 있다.

소문봉, 을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봉우리들을 련결하여 쌓은 성의 둘레는 7 000여m에 달하였다.

성의 북쪽에는 험준한 산줄기들이 첩첩히 잇닿아있고 동쪽과 서쪽은 급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대동강쪽으로 향한 골짜기가 있는 남쪽에는 겹성을 쌓아 든든하게 하였다.

성에서는 20여개의 성문터, 65개의 치자리 그리고 량곡창고터와 장대, 병영, 무기고자리들이 발굴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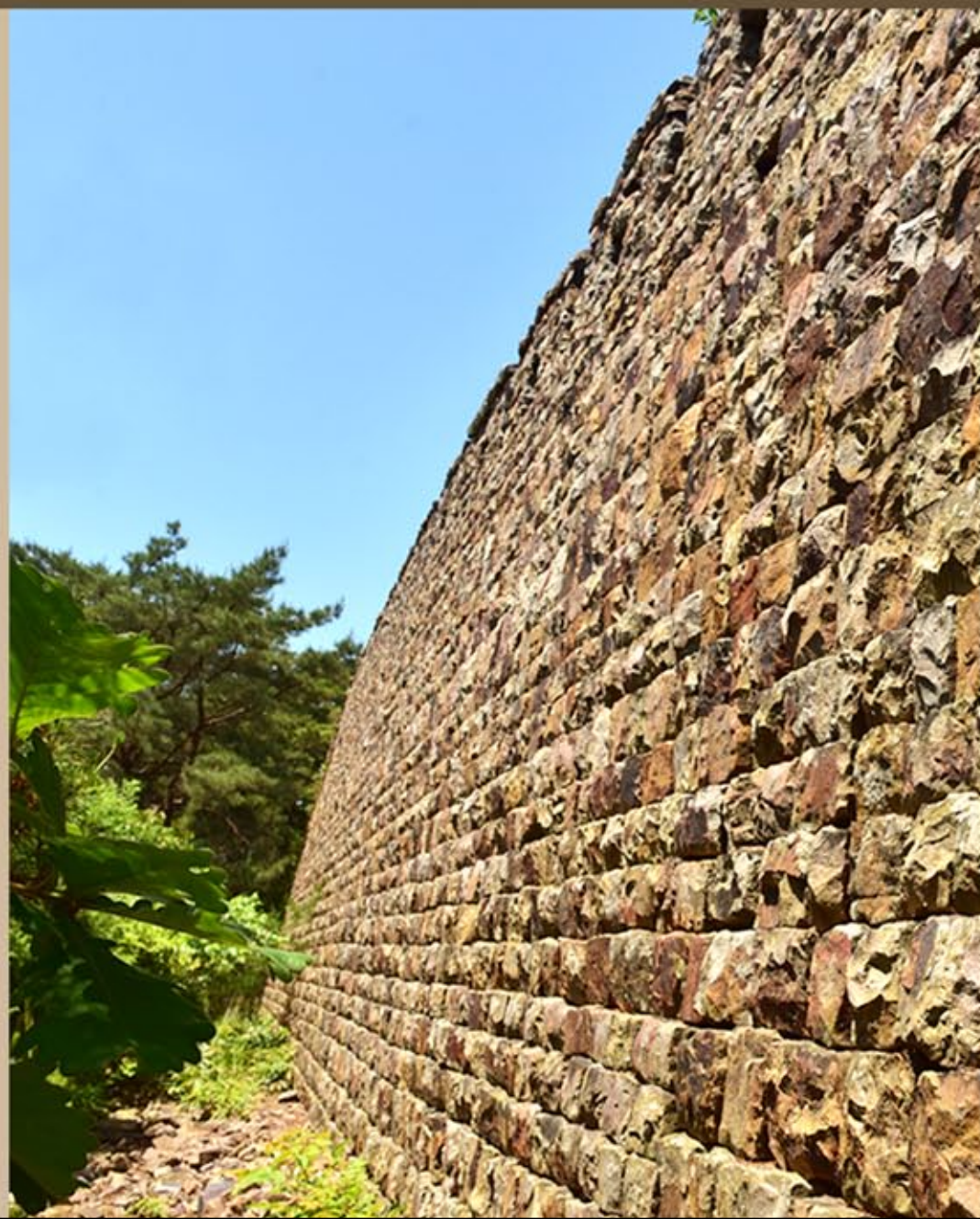
현재 소문봉의 200m구간의 성벽과 남문 등이 원상대로 복원되여있다.

대성산의 남쪽기슭에는 427년부터 586년까지 고구려의 왕궁이였던 안학궁의 터가 있다.

흙과 돌을 섞어서 쌓은 궁성벽이 궁터를 방형으로 둘러싸고있는데 그 한변의 길이는 622m이다.

그리고 동, 서, 남, 북에 각각 문터가 있다.

궁전에는 총건평 3만 1 458㎡에 달하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던것으로 하여 현재 수천개의 주추돌과 주추자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대성산성 남문

대성산에는 력사가 오랜 불교사찰인 광법사가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374년-412년)시기에 세워진 이 사찰은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폭격으로 파괴되였다가 주체79(1990)년에 원상복구되였다.

대성산일대에는 고구려시기의 무덤이 1 000여기나 있다.

무덤들은 주로 돌칸흙무덤과 돌각담무덤이고 일부 벽화무덤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과 말, 수레, 현무, 개마무사 등이 그려져있다.

이밖에 대성산일대에는 고구려사람들이 남긴 토성들과 첨성대터, 우물유적들이 있다.

대성산의 력사유적들은 당시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생활과 풍속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광법사

천왕문(광법사)

8각5층탑(광법사)

안학궁터

고구려무덤떼의 일부

장수못

《대성산》 체육기재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청춘거리체육촌에 주체105(2016)년 6월에 일떠선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이 있다.

연건축면적이 9 980여㎡에 달하는 공장은 생산과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나라의 체육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걸음을 힘차게 내짚고있다.

공장에서는 축구공, 바드민톤공, 탁구공을 비롯한 공류와 장갑류, 그물류 등 각종 체육용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오늘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성산》표제품들은 그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Taesongsan Sports Goods

【천연기념물】

함경남도 함흥시 흥덕구역에는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그루의 반송이 있다.

일명 퍼진소나무라고도 하는 반송은 지면과 수직보다 수평으로 더 길게 자라는 소나무의 변종이다.

나이가 450년이상으로서 밑둥둘레 2.2m, 가슴높이둘레 1.9m인 함흥반송의 키는 4.2m인데 줄기의 2.35m높이에서 가지가 수평으로 8m정도 곧게 뻗어나가면서 두갈래로 갈라졌다.

거기에서 다시 수많은 잔가지들이 뻗어 전체적으로 소반모양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는데 그 너비는 동서로 13.6m, 북남으로 13.8m나 된다.

함흥반송은 그 모양이 기묘하고 연구적가치가 있는것으로 하여 적극 보호관리되고있다.

사진 황정혁
글 김선명

낸곳: © 조선화보사 2021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